



광주시립미술관이 기획한 코로나19 극복 '미술인 희망 릴레이' 첫번째 주자로 나선 김해성 작가.

소박한 전시장에 꽃의 향연... "함께해요"

블레스 유 외과 '루이스 갤러리' 개관 6월 17일까지 이정주 작가 개인전 동료·후배·아마추어 작가 무료 대관

구절초, 코스모스, 산수유, 해당화, 산딸나무, 접시꽃, 산국화...

소박한 전시장에 꽃의 향연이 펼쳐졌다. 다양한 색의 자태를 뽐내는 화사한 꽃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건넨다. 늘상 곁에 있어 소중함을 잘 모르던 꽃과 나무들이 그 어느 때보다 위안을 주는 요즘이다.

이정주작가 개인전이 오는 6월17일까지 루이스 갤러리(광주시 북구 하서로 428)에서 열린다. '들꽃 이야기 2030'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꽃'을 소재로 오랫동안 작업해온 이 작가가 2018년~2019년 작업한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는 기획이다.

40여년간 적을 뒀던 광주대 예술대학에서 정년 퇴임 후 교외로 작업실과 거처를 옮긴 그녀는 꽃과 나무 등 '자연속으로' 성품 더 들어섰고, "그곳에서 느끼는 따듯한 감정이 사라지기 전에 부지런

히, 씩씩하게 작업을 진행"해왔다.

50년 그림 인생의 절반 정도는 '꽃'과 함께였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이 작가의 작품에서 눈에 띄는 건 '색감'이다. 유희 물감을 사용하지만, 맑고 투명하고 가벼운 색감이 돋보여 다양한 꽃이 갖고 있는 화사함이 더 눈에 띈다. 또 꽃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함께 추상 느낌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색다른 느낌을 준다. 추상과 구상의 결합은 의도적인 게 아닌, 자연스레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6개 작품이 하나의 세트인 '율동' 시리즈는 리듬감이 돋보이는 추상 작품이다.

"작업은 늘 변화하기 마련인데, 꽃 작업을 오래 했지만 추상과 구상이 자연스레 어우러지며 조금씩 변모하더군요. 요즘에 새삼스레 꽃의 매력에 빠져 있어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수수한 들꽃들도 눈에 더 들어오고요. 풍성한 꽃 무더기를 화폭에 풀어내기도 하고, 역사와 코스모스도 한 화면에 담기도 하죠."

이번 전시는 블레스 유 외과가 새롭게 문을 연 루이스 갤러리 개관 초대전이다. 이 작가는 가족이 운영하는 병원에 갤러리를 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지난해 개원 당시 병원 로비와 대기실 등에

이 작가의 화사한 꽃작품을 걸어두었던 병원측은 환자들이 그림을 보며 위안을 얻는 데 의미를 부여했고 올해 아예 병원 옆에 독립된 공간을 확보, 갤러리를 오픈했다.

이 작가는 외국 여행에서 대형 미술관이 정식 갤러리에서 작품을 감상할 때도 좋았지만 '예기치 않은 의외의 공간'에서 만났던 그림이 더 큰 감동을 줄 때도 의외로 많았다고 말한다. 그 때마다 "그림이 사람을 찾아가는구나"는 생각을 했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 감동을 공유하는 '함께 나누는 공간'을 생각하게 됐다.

루이스갤러리는 앞으로 동료·후배 작가들을 비롯해 아마추어로 그림을 그리는 이들에게도 전시 공간을 무료로 대관해 줄 생각이다. 작가들에게는 전시 장소를 제공하고,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이정주 작가는 활발한 작업활동과 함께 40여년간 광주대 예술대학교수로 재직하며 많은 제자들을 길렀다. 현재 한국미협, 한국여류화가협회 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광주전남여성작가회, 이사회, 그룹회 회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코로나19 '미술인 희망 릴레이 챌린지' "모든 이들에게 파이팅"

첫 주자 김해성 작가 등 20명 참여 5월 4일~31일 홈페이지에 소개

서양화가 김해성 작가는 최근 '나비다'라는 작품을 제작했다. 엄마와 아이들이 화사한 꽃과 나비에 둘러싸여 행복한 한 때를 보내고 있는 드로잉 작품이다. 코로나에 지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한 김 작가는 "코로나가 없던 시절, 온 가족이 꽃향기를 맡으며 들판을 거닐었던 그런 세상이 곧 올 거라는 믿음을 담은 그림"이라고 말했다.

김 작가의 이번 그림은 지역 예술인들이 시민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의 첫 출발이다.

광주 지역 예술인들이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코로나 19 극복 메시지를 전한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이 기획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광주 미술인 희망 릴레이 챌린지 행사'를 통해서다. 최근 위기에 빠진 화해능가를 돕기 위한 '플라워 버킷 챌린지'나 코로나 19 환자를 돌보는 수많은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작가들도 희망 나누기에 동참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술관이 첫 번째 챌린지 작가를 선정하면, 선정된 작가가 다음 챌린지 참여 작가를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두 20명의 작가들이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행사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제작해 미술관에 작품 이미지를 전달하고, 미술관은 5월 4일부터 31일까지 순차적으로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작가와 작품 이미지를 소개할 예정이다.

미술관은 챌린지 행사 첫 번째 참여 미술인으로

오랫동안 지역 미술인들과 함께 미얀마-캄보디아 등 아시아 오지를 찾아 다채로운 미술봉사 활동을 펼치며 나눔 정신을 실천해온 김해성 작가를 지명했다.

김 작가는 '나비다'를 출품하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도 각각의 자리에서 힘을 쏟으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온몸을 던져 질병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희생으로 모든 것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아름다운 꽃향기 가득한 들판을 가족과 함께 거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도 힘겹게 질병과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파이팅을 외칩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작가는 고근호 조각가를 다음 챌린지 참여 작가로 지목했다.

미술관은 온라인 전시가 끝나는 대로 작품 이미지를 활용한 엽서를 제작해 미술관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며 시민들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인 등에게 위로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술인들에 대한 시립미술관의 작지만 따뜻한 격려와 지원의 의미도 담고 있다. 이번 사태로 대부분의 전시가 취소·연기되면서 미술작가들은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장은 "광주 시민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챌린지 참여 작가분들의 작품을 통해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미술관의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준 모든 작가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 북구 블레스 유 외과에 문을 연 '루이스갤러리'에서는 오는 6월17일까지 이정주 초대전이 열린다.

"온라인으로 즐기는 어린이문화 콘텐츠"

ACC, '놀러와, 이야기 숲으로' 등 5월24일까지 매주 일요일 6회

ACC 어린이문화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즐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행 이진식)이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온라인 어린이 문화 예술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온라인 제공은 장기간 실내생활로 인한 어린이와 가족 간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표적인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은 어린이문화원의 체험관, 도서관 등에서 인기에 진행했던 '놀러와, 이야기 숲으로' 등 모두 6종이다.

'놀러와, 이야기 숲으로'는 ACC에서 발간한 중앙아시아 그림책을 스토리텔러의 생생한 목소리

로 들을 수 있다. 5월 24일까지 6회에 걸쳐 매주 일요일 ACC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집에서 접할 수 있다. '책 나와라 똑딱!'은 그림책 작가 '이현'과 함께 하는 작은 북 콘서트다. 작가의 저서인 '손손손, 손을 씻어라'를 활용해 일상 속 건강한 생활습관을 익힐 수 있다.

세계의 다양한 춤을 배워보는 몸 놀이 프로그램 '출래 출래 몸놀이'도 진행한다. 러시아, 필리핀, 인도 등 다양한 나라의 춤을 응용한 몸동작을 따라 배울 수 있도록 꾸렸다.

예술체험을 통한 제작문화의 전 과정을 경험해 보는 '생각하는 손'에서는 일상 속 다양한 재료를



ACC 어린이 체험관 내부

활용해 무언가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밖에 티벳의 전통악기인 싱잉보울 등 아시아의 다양한 악기를 알아보고, 나만의 악기를 만들어보는 '세상에 이런 악기'도 준비했다.

한편 ACC는 어린이체험관의 아시아 여러 나라의 자연과 소리, 건축 영역 체험북 활동자료를 대상별(유아, 초저, 초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만족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